

이리 터

각본 윤정현

#1. 도로 옆 인도 / 낮

횡단보도 옆 인도

후줄근한 츄리닝 바지에 옆으로 작은 가방을 매고
후드 집업 모자를 눌러 쓴 주인공

헌 장바구니를 들고 비둘기 떼 사이로 느릿하게 걸어간다.

거리를 걷는 누군가가 왁- 하고 발을 쿵 굴리며 비둘기에게 겁을 준다.

비둘기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른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고 모자를 다시 한번 푹 눌러쓰며 슬그머니 옆으로 비킨다.

비둘기들이 흩어진 자리에 내려앉고 주인공은 다시 거리를 걸어간다.

#2. 주택가 골목 / 낮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리

주인공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옷차림이나 묘하게 이질적이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주인공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

주인공

(작게) 네. 가능해요.
주소만 필요하신거죠.

잠깐 이어지는 침묵

네, 그럼 이번 달부터 넣어드릴게요.
(통화를 종료한다)

연락처에 대여4 라는 이름으로 새로 등록하는 주인공

#3. 빌라 1층 복도 우편함 앞 / 낮

빌라 입구, 계단과 1층으로 연결되는 복도 사이 우편함 앞.
카메라가 우편함을 비춘다.

중간쯤 위치한 우편함 허공 앞에서 맴도는 주인공의 손

302호 우편함 안에는 각양각색의 우편이 쌓여있다.

우편함 입구 반을 가린 간이 봉투 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한 사람에게 온 우편이
여럿 쌓여있다.

우편물을 꺼내 무심하게 한장씩 넘긴다

각자 다른 이름에게 도착한 연관성 없는 우편들
관공서, 요금청구서, 학교공고문, 안내문, 광고지...

몇 개의 우편을 분리해 가방에 넣고 남은 우편물 뭉텅이는 장바구니에 던져 놓는다.
우편물을 넘기던 주인공의 손이 멈춘다.
주인을 잃은 똑같은 사람에게서 온 봉투

소인은 해외의 같은나라, 같은 주소, 같은 이름으로 온 우편

간이 봉투 안 같은 주소로부터 도착한 우편물들을 손끝으로 숙
훑고 봉투를 챙긴 뒤 계단을 오른다.

텅 빈 우편함을 비춘다.

#4. 302호 문 앞 / 오후 낮

문 앞에 붙은 안내문을 쳐다본다.

안내드립니다.

302호 청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시-

xx월 xx일 오전 8시~오후5시 예정 청소클린업체

(익살스러운 청소업체 로고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로 고정되어있다.)

안내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띠링- 하는 안내음에 뜨는 문자창을 확인한다.

302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클린업체 00입니다
비대면 요청 서비스에 따라 xx일 청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현관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쳐다보다 장바구니에 핸드폰을 푹 던져 넣고
현관 도어락을 누르며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한다.

#5. 공터와 임대 건물 앞 거리 / 밤

임대현수막이 걸린 빈 상가건물, 모텔하우스가 지어진 공터와 주차장
멀리서 빛나는 아파트 불빛들이 보인다.

장바구니를 흔들며 흐느적하게 걸어가는 주인공.
걷는 건지 춤추는 건지 모를 걸음.

반대쪽에서 목줄이 매인 대형견과 주인이 함께 걸어온다.
주인공은 그 개를 마주보고 개도 주인공을 잠깐 본다.

걸어가는 뒷모습을 쳐다보고 발을 다시 뒤로 돌려 허공을 보며 걸어가는 주인공

#6. 빌라 계단 / 오후 6시경

계단을 오르는 주인공. #1-5와 다르지만 비슷한 차림새

3층에서 인기척과 목소리가 들린다.

직원

아이 이거 참...

궁시렁대며 부스럭 대는 소리, 제자리를 맴도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주인공이 주춤 하며 뒤로 돌아갈까 멈추는 새
주인공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직원이 귀에 핸드폰을 댄 채로 계단쪽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며 돌아본다

주인공과 눈이 마주치자 직원의 얼굴이 환해진다.

직원
맞으시죠? 302호!

#7. 302호 문 앞 복도 / 오후

302호 현관 앞. 직원과 주인공이 마주 서 있다.

직원은 살갑게 웃으며 주인공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현관을 짚고
주인공은 한발짝 떨어져 거리를 두고 모자를 고쳐 눌러쓴다.
묘하게 어긋나는 둘의 시선

직원

저희가 나가려는데 도어락 배터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문이 안잠겨가지고 하이고 곤란하던중에... 맞춰오셨네

주인공이 눈을 피하며 네- 하고 짧게 답한다.

직원

청소 다 됐구요, 뭐 별거 없어서 치울것도 없고...
이거, 사람 살았는지도 모르겠던데요?
빈 패트병들만 잔뜩이고.
그래도 새 집 처럼 싸악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남은 짐은 박스에 따로 빼놓았으니 그것만 챙겨주시면
모델하우스로 내놓아도 될 정도니까--

직원이 너스레를 떨며 말하지만 데면데면한 주인공의 모습을 느끼고 말 끝이 점점 흐려진다.

직원

그럼 뭐... 저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꾸벅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향하다 슬쩍 돌아본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 내려간다.

#8. 302호 내부 / 밤

기본 가구만 남겨진 헿한 방

거실 구석, 박스 세 개. 그 옆 잘리고 분리된 페트병들이 모여있다.

페트병 안에는 동전, 펜, 영수증, 여행지에서 모은듯한 자석들이 담겨져있다.

잘린 페트병 위 뚜껑으로 고정된 쌀, 콩 등이 담긴 비닐도 있다.

주인공이 천천히 집을 둘러본다.

벽에 못 자국과 무언가 걸려있었던 빈 벽지들의 흔적을 바라본다.
박스안의 내용물을 살피는 주인공.

은행 달력에 외국어로 적힌 일정들, 외국어사이 뜨문뜨문 적힌 맞춤법이 틀린 한국어가 보인다. 날짜 몇군데에 동그라미가 쳐져있다.

어딘가에 걸거나 장식하는듯한 손 떼 묻은 이국적인 장식용품들.
해외 약국에서 구매한 쓰다 만 연고들과 설명서들.

밑에 깔린 파일을 꺼내는 주인공

깨끗한 비닐파일 안에는 접힌 흔적이 남은 어린아이가 그린듯한 그림들
그림에 적힌 생소한 이름은 해외에서 온 우편 봉투에서 본 이름과 같다.

옆의 박스에는 새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용 장난감들과 기초 언어책,
성인 여성용 비타민과 각종 비닐에 담겨 택도 뜯지않은 아기 옷이 보인다.

그 옆 뜯겨있는 우편봉투, 아까 우편함에서 본 것과 같은 나라, 같은 주소에서 보내온 것이다.

주인공이 봉투안의 내용물을 꺼내 바라본다.
주인공의 뒷 모습을 비추는 카메라
무엇을 보고있는지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

#9. 302호 방 안 / 밤

아무것도 없는 바닥

주인공이 입고있던 패딩을 덮고 눕는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는 주인공

띠링- 하고 울리는 핸드폰

[Web발신]

고객님 만족스러우셨다면 별점5개의 후기 부탁드립니다!
(수신차단 고객센터로 문의)

잠시간 바라보다 창을 내리는 주인공

기본 배경화면을 넘기다 연락처 앱을 클릭한다.

302호

김정자- 대여1

박정수- 대여2

남지훈- 대여3

청소클린업체

동생

302호와 청소클린업체의 연락처를 삭제하는 주인공
동생의 연락처를 클릭한다.

핸드폰 불빛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누운 옆모습을 찍는 카메라
멀리서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동물 울음소리가 들린다.

#10. 302호 방 안 / 오전

주인공이 박스를 다시 열어본다. 박스안의 짐들을 나눠 새 박스에 담는다.

패트병들도 넣을까 고민하다 장바구니에 넣는다.

박스를 들고 일어나는 주인공

#11. 대학가 앞 맨션 / 낮

대학가 앞 신식 인테리어의 상가건물들 사이 낡은 빌라
#6-10 장면과 다른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주인공이
양손에 박스와 핸드카트를 들고 힘겹게 내려온다.
대학생들 사이로 걸어가는 주인공

#12. 우체국 안 / 낮

주인공이 박스를 내민다.

우체국 직원이 주소를 확인한다.

우편함에서 본 해외의 그 주소를 읊으며 해외배송임을 확인하는 직원
요금을 내고 배송표가 붙어 택배함에 놓여지는걸 지켜본다.

#13. 거리 / 낮

우체국을 나와 걷는 주인공

빈 손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는 카메라
걸음을 멈추며 폭 눌러 쓴 모자를 벗는 주인공

가방에서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봉투를 하나 꺼내고 우체국으로 다시 향한다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주인공